묻따풀 학당

한국사람에게 인격은 무엇을 말하는가

저자 최봉영
작성일자 2023년 9월 27일
출처 최봉영의 페이스북

> 한가위를 앞두고 내가 벗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지난 토요일에 <묻따풀 강학회>에서 함께 공부한 글을 고치고 다듬어서 페북에 올리기로 했다. 원고지로 120매에 이르는 긴 글이다. 벗님들, 모두 따뜻하고 즐거운 한가위를 보내십시오.

1. 사람

한국말에서 사람은 '살다', '살리다(살+리+다)'에 바탕을 두고 있는 말이다. 사람은 온갖 것이 가진 살리는 힘을 살려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임자를 말한다. 사람은 물, 불, 흙, 돌, 풀, 나무, 물고기, 짐승과 같은 것이 가진 살리는 힘을 살려서 살아간다.

사람이 온갖 것이 가진 살리는 힘을 살려서 살아가는 것은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소리와 뜻을 하나로 아울러서 무엇을 어떤 것으로 여기는 말을 만들어서 갖가지로 생각을 펼친다. 사람은 생각이 미칠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묻고 따져서 풀고, 깨치고 익혀서 배우고, 짓거나 만들거나 부리거나 다스릴 수 있게 되었다. 사람은 생각을 펼치는 힘에 기대어서 문화를 가꾸고 문명을 일구는 일을 해왔다.

2. 나

한국말에서 '나'는 '나다', '낳다(나+히+다)', '내다(나+이+다)'에 바탕을 두고 있는 말이다. 나는 '난 것'이면서 '낳은 것'이면서, '낸 것'을 뜻하는 말이다. 이는 곧 '나'라는 것이 절로 생겨나서 태어나게 된 것이면서, 어버이가 나를 낳아서 태어나게 된 것이면서, 누리에 널려 있는 모든 것이 나를 나도록 해서 태어나게 된 것임을 말한다.

'나'는 하나의 몸을 가지고 하나의 목숨을 살아가는 낱낱의 사람이다. 사람은 무리를 지어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지만 나고, 살고, 죽는 것은 낱낱으로서 저마다 따로 한다. 사람들은 사람의 모양새를 갖추고서 살아가는 '사람의 무리'를 '인류(人類)'라고 말하고, '사람의 무리'를 이루고 있는 '낱낱의 사람'을 '개인(個人)'이라고 말하고, '낱낱의 사람'이 무리를 지어서 이리저리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것을 '인간(人間)'이라고 말한다.

3. 임자

한국말에서 임자는 옛말이 '님자'이다. '님자=님+자'는 '니다(니+다)', '니이다(니+이+다)', '자', '재다(자+이+다)'에 뿌리를 두고 있는 말이다.

'님+자'에서 '님'은 '니+다', '니+이+다'와 바탕을 같이 하는 말로서, 누가 무엇을 니어서 제가 가진 것이 되게 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이를테면 '니+다 – 그가 머리에 보따리를 니다', '니+이+다 – 그가 머리에 보따리를 니게 되다'에서 '니~'는 누가 무엇을 머리에 니어서 제가 가진 것이 되게 하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가+니', '오+니', '먹+으니', '되+니', '붉+으니', '매+우니', '그러+니' 따위에서 '~니'는 누가 무엇을 겪어서 제가 가진 것이 되게 하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님+자'에서 '자'는 '자'와 '재다(자+이+다)'와 바탕을 같이 하는 말로서, 누가 무엇을 자로 재서 길이, 넓이, 부피, 크기 따위를 헤아리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이렇게 볼 때, '님자'는 사람이 무엇을 겪어서 저의 것이 된 것을 자로 재서 어떤 것으로 헤아리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벌, 나비, 개, 돼지, 멸치, 문어, 고래, 침팬지, 사람과 같은 것은 모두 무엇을 겪어보고서 저의 것이 된 것을 갖가지 자로 재서 어떤 것으로 헤아리는 일을 하는 임자이다. 그들은 이런 일을 바탕으로 스스로 뜻을 내고, 두고, 이루는 일을 꾀하면서 살아간다.

4. 사람됨

사람은 그냥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서 함께 어울려 살아간다. 이를테면 사람은 너나없이 젊은이, 늙은이, 어머니, 아버지, 딸, 아들, 지어미, 지아비, 학생, 교사, 경찰, 군인, 정치인, 회사원, 소설가, 화가, 음악가와 같은 어떤 사람으로서 함께 어울려 살아간다. 이런 까닭으로 사람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일을 잘하려면 누구를 어떤 사람으로 알아보고, 알아차리고, 알아주는 일을 잘해야 한다.

사람은 그냥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사람이 된다. 이를테면 젊은이가 되는 과정을 거쳐서 어떤 젊은이가 되고, 교사가 되는 과정을 거쳐서 어떤 교사가 되고, 피난민이 되는 과정을 거쳐서 어떤 피난민이 된다.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는 절로 되는 것이고, 둘째는 스스로 되는 것이고, 셋째는 탓으로 되는 것이다. 이를테면 젊은이가 되는 것은 절로 일어나는 어떤 일에 바탕을 두고서 되는 것이고, 선생이 되는 것은 스스로 일으키는 어떤 일에 바탕을 두고서 되는 것이고, 피난민이 되는 것은 탓으로 벌어지는 어떤 일에 바탕을 두고서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저마다 나름의 사람됨을 갖게 된다. 그런데 사람이 갖게 되는 사람됨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갈래로 나뉘어 있다. 이를테면 '나'라는 사람은 아들로서 사람됨, 아버지로서 사람됨, 어른으로서 사람됨, 교사로서 사람됨, 관객으로서 사람됨, 거주자로서 사람됨, 운전자로서 사람됨, 소비자로서 사람됨, 주권자로서 사람됨과 같은 여러 가지 사람됨을 아울러 갖고 있다.

‘나’는 내가 가진 여러 가지 사람됨을 하나로 아우르고 어우른 모두를 뜻한다. 사람들은 ‘나’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람됨을 기틀로 삼아서 인성, 성질, 인품, 품성, 인격, 품격, 인권, 권리, 권한, 자격, 구실, 노릇, 인정, 존중, 차별 따위를 말한다. 한국말에서 이런 것이 어떤 바탕에서 어떤 뜻을 갖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람됨의 밑바탕 : 인성(人性)

살림살이의 임자인 사람들은 저마다 사람됨의 밑바탕을 갖고 있다. 사람들은 저마다 갖고 있는 사람됨의 밑바탕을 인성(人性)이라고 말해왔다. 사람들은 사람됨의 밑바탕인 인성을 밑천으로 삼아서 온갖 것을 느끼고, 알고, 바라고, 이루는 일을 꾀하면서 나름의 성질(性質)을 갖게 된다. 사람들은 낱낱의 사람이 갖고 있는 나름의 성질을 개성(個性)이라고 말한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개성은 서로 다를 수 있다. 사람은 저마다 나름의 개성을 가진 존재로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게 된다.

사람됨의 됨됨이 : 인품(人品)

살림살이의 임자인 사람들은 저마다 사람됨의 됨됨이를 갖고 있다. 사람들은 사람됨의 바탕인 인성을 밑천으로 삼아서 온갖 것을 느끼고, 알고, 바라고, 이루는 일을 꾀하면서 저마다 나름으로 사람됨의 됨됨이를 갖게 된다. 사람들은 저마다 갖고 있는 사람됨의 됨됨이를 인품(人品)이라고 말해왔다. 인품은 마음의 안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알아보기 어렵다. 이런 까닭으로 사람들은 인품을 대충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으로 나누어서 “그는 인품이 좋다.”, “그는 인품이 좋지 않다.” 따위로 말한다. 사람들은 낱낱의 사람이 갖고 있는 나름의 인품을 성품(性品)이라고 말한다. 사람들은 성품에 대해서 “성품이 좋다.”, “성품이 좋지 않다.”, “성품이 나쁘다.”, “성품이 착하다.”, “성품이 사납다.” 따위로 말한다. 사람들이 저마다 갖고 있는 나름의 성품은 서로 다를 수 있다.

사람됨의 차림새 : 인격(人格)

살림살이의 임자인 사람들은 저마다 사람됨의 차림새를 갖고 있다. 사람은 사람됨의 바탕인 인성을 밑천으로 삼아서 온갖 것을 느끼고, 알고, 바라고, 이루는 일을 꾀하면서 저마다 나름으로 사람됨의 차림새를 갖추게 된다. 사람들은 저마다 갖고 있는 사람됨의 차림새를 인격(人格)이라고 말해왔다. 사람들은 인격을 바르게 갖추려고 염치, 예의, 예절, 체면, 체모 따위를 차리고자 한다. 이 때문에 인격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염치, 예의, 예절, 체면, 체모 따위를 차리는 일에 힘을 기울이지 않는다.

인격은 밖으로 드러나는 사람됨의 차림새이기 때문에 바깥에서 또렷이 알아볼 수 있다. 사람들은 인격을 자질(資質)과 품격(品格)으로 나누어서 “그는 고상한 인격을 가졌다.”, “그는 고매한 인격을 가졌다.”, “그는 뛰어난 인격을 가졌다.‘, ”그는 인격이 높다.“, “그는 인격이 별로다.”, “그는 인격이 개차반이다.”, “그는 인격자가 맞다.”, “그는 인격자이다.”, “그는 인격을 존중한다.”, “그는 인격을 무시한다.”, “그는 인격을 차별한다.”, “그는 인격을 모독한다.” 따위로 말한다. 사람들은 낱낱의 사람이 갖고 있는 나름의 인격을 성격(性格)이라고 말한다. 사람들이 저마다 갖고 있는 나름의 성격은 서로 다를 수 있다. 이런 까닭으로 사람들은 성격을 말할 때, “누구와 누구는 성격이 다르다.”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하게 되고, “누구와 누구는 성격이 비슷하다”라는 말을 가끔 하게 되고, “누구와 누구는 성격이 같다.”라는 말은 거의 하지 않게 된다.

사람됨의 줏대 : 주관(主觀)

살림살이의 임자인 사람들은 저마다 사람됨의 줏대를 갖고 있다. 사람은 사람됨의 바탕인 인성을 밑천으로 삼아서 온갖 것을 느끼고, 알고, 바라고, 이루는 일을 꾀하면서 저마다 좋아하거나 싫어하고, 즐거워하거나 괴로워하는 나름의 줏대를 갖게 된다. 사람은 나름의 줏대를 좇아서 가질 것과 버릴 것, 가까이 할 것과 멀리할 것, 받아들일 것과 물리칠 것 따위를 가려서 다스리게 된다.

사람들은 저마다 갖고 있는 사람됨의 줏대를 주관(主觀)이라고 말해왔다. 사람들은 줏대가 있는 사람을 ‘주관이 있는 사람’, ‘주관이 또렷한 사람’, ‘주관을 가진 사람’으로 말한다. 사람은 나름의 줏대를 가짐으로써 ‘나’라는 임자로 설 수 있다. 사람은 나름의 줏대를 펼쳐나가는 일을 통해서 ‘나’라는 임자가 무엇을 하는 누구인지 또렷이 알아보게 된다. 사람은 누구나 나름의 줏대를 좇아서 줏대가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어 한다.

줏대를 펼쳐서 누리는 힘 : 권리(權利)

살림살이의 임자인 사람들은 저마다 나름의 줏대를 펼쳐서 누리는 힘을 갖고 있다. 사람들은 나름의 줏대를 펼쳐서 누리는 힘을 권리(權利)이라고 말해왔다. 이런 권리는 임자가 줏대를 뜻대로 펼쳐갈 수 있는 자유에 바탕을 두고 있다. 사람들은 임자가 줏대를 뜻대로 펼쳐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자유(自由)롭다’라고 말하고, 임자가 줏대를 뜻대로 펼쳐서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을 ‘자유(自由)스럽다’라고 말한다.

사람이 줏대를 펼쳐서 누리는 것에서 ‘자유(自由)’가 비롯하기 때문에 임자가 줏대를 갖지 않거나 가질 수 없는 경우에 ‘자유’와 ‘자유로움’과 ‘자유스러움’이 어떤 뜻도 갖지 못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임자의 권리가 미칠 수 있는 자유의 범위를 권한(權限)이라고 말하고, 권리에 따르는 자유에서 비롯하는 책임을 의무(義務)라고 말한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줏대가 저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쪽과 저쪽이 내세우는 권리도 다를 수 있다. 이런 까닭으로 사람들은 저마다 나름의 권리를 내세우게 된다. 그런데 사람들이 내세우는 권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모두가 함께 하는 인권(人權)이고, 다른 하나는 저만 또는 저들만 따로 하는 특권(特權)이다. 인권은 사람이면 누구나 펼쳐서 누릴 수 있는 권리로서, 모두가 다 같이 두루 하는 일에 바탕을 두고 있다. 반면에 특권은 저만 또는 저들만 따로 펼쳐서 누릴 수 있는 권리로서, 저만 또는 저들만 오로지 하는 일에 바탕을 두고 있다. 저나 저들이 오로지 할 수 있는 힘만 갖게 되면 갖가지로 특권으로 만들어서 저나 저들만 따로 할 수 있다.

특권이나 인권은 그냥 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고 지키는 일을 통해서 생겨난 것이다. 이런 까닭으로 사람들은 특권이나 인권을 놓고서, 만들어 지키려는 쪽과 허물어 없애려는 쪽이 서로 맞붙어서 힘겨루기를 벌이는 일이 많다. 사람들은 어떤 하나의 일을 놓고서, 특권을

앞세우는 쪽에서 벌이는 특권투쟁과 인권을 앞세우는 쪽에서 벌이는 인권투쟁이 서로 뒤엉켜서 어지럽게 돌아가는 일이 벌어진다.

특권은 특별한 이들만 가질 수 있도록 이쪽과 저쪽의 권리를 차별하는 것에 바탕을 두고 있다. 사람들이 특권으로 권리에 차별을 두게 되면, 권리에 따르는 의무 또한 차별을 두게 된다. 특권은 권리를 확대하고 의무를 축소하는 쪽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그리고 특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이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자유롭게 펼쳐서 누릴 수 있다. 사람들은 누구나 특권을 갖고 싶어 하는 까닭으로 다른 이들을 누를 수 있는 힘을 가진 이들은 갖가지로 특권을 만들어서 저만 또는 저들만 따로 하고자 한다.

사람들은 집단의 힘을 빌려서 여러 가지 특권을 만들어서 저만 또는 저들만 누리는 일을 해왔다. 특히 사람들은 국가가 가진 공권력을 빌려서 여러 가지로 특권을 만들어서 저만 또는 저들만 펼쳐서 누리는 일을 해왔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이 특권에서 빚어지는 차별을 일상처럼 받아들여서 특권에 맞서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갖가지로 재주를 부려왔다. 이와 함께 그들은 특권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 시간과 자원과 노력을 들여서 끊임없이 특권투쟁을 벌인다. 그들은 특권을 지키는데 필요한 관례를 만들고, 법률을 만들고, 논리를 끌어들이고, 폭력으로 억누르는 일을 한다. 그들은 특권투쟁으로 목숨을 잃는 일이 있어도 좀처럼 특권에 대한 꿈을 놓지 않는다.

인권은 모든 이들이 함께 누리는 권리로서 이쪽과 저쪽이 권리를 같이하는 것에 바탕을 두고 있다. 사람들이 인권으로 권리에 차별을 두지 않으면 권리에 따르는 의무도 차별이 사라진다. 인권은 권리와 의무를 모두에게 같게 하는 쪽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사람들은 권리 가운데서 누구나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인권(人權)으로 받아들여서, 모두가 다 같이 하고자 한다. 그들은 인권을 지키는데 필요한 관례를 만들고, 법률을 만들고, 논리를 끌어들이고, 폭력으로 억누르는 일을 한다. 그들은 인권투쟁으로 목숨을 잃는 일이 있어도 좀처럼 인권에 대한 꿈을 놓지 않는다.

사람들이 크게 무리를 지어서 나라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단계에 이르자,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배층은 사람들을 신분으로 나누어서 특권에 따른 차별을 예사롭게 만들었다. 이 때문에 오랜 동안 대부분의 나라가 국왕이나 황제가 모든 것을 거느리는 '왕국(kingdom)', 제국(empire)로 이어졌다. 백성들이 지배층의 특권에 맞서서 인권을 내세우는 일은 좀처럼 일어날 수 없었다. 그런데 1776년에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을 하면서 국민의 권리에 바탕을 둔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다. 그들은 <독립선언서(Declaration of Independence)>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인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창조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류는 정부를 조직했으며, 이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국민의 동의로부터 유래하고 있는 것이다. 또 어떤 형태의 정부이든 이러한 목적을 파괴할 때에는 언제든지 정부를 개혁하거나 폐지하여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원칙에 기초를 두고 그러한 형태로 기구를 갖춘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인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로써 국민이 정부의 주인이 되어서 평등에 바탕을 둔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인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앞세우는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1789년에 프랑스에서 대혁명이 일어나서 시민이 나라를 주도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이 발표되었다. 그들은 제1조에서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지니고 태어나서 살아간다. 사회적 차별은 오로지 공공 이익에 근거할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때부터 자유와 평등과 박애에 바탕을 둔 보편적 인권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게 되었다.

1945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것과 함께 국제연합이 만들어지자, 1948년에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을 발표하였다. 이 선언문에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함께 누려야 하는 인권이 무엇인지 또렷하게 드러나 있다. 이 선언문은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서 동등하다. 사람은 하늘로부터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라고 밝히고, 이어서 “어떤 사람이든지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견해, 출신, 재산, 신분과 같은 것으로써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이는 사람들이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견해, 출신, 재산, 신분 따위를 빌미로 어떤 특권을 만들어서 저만 또는 저들만 갖고서 누리는 일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오늘날 곳곳에서 사람들은 이런저런 특권과 차별을 놓고서 지키려는 쪽과 없애려는 쪽이 맞붙어서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 특권을 지키려는 쪽은 특권투쟁을 벌이고, 특권을 없애려는 사람들은 인권투쟁을 벌인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것을 특권으로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무엇을 특권으로 보느냐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다. 사람들은 특권을 특권이 아니라고 우길 수 있고, 특권이 아닌 것을 특권이라고 우길 수 있다. 사람들이 인권을 말할 때도 꼭 같은 일이 벌어진다. 특권투쟁과 인권투쟁이 맞붙은 싸움은 어느 쪽도 물러날 수 없는 싸움으로 이어진다.

사람의 구실 : 자격(資格)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갈 때, 낱낱의 사람은 저마다 나름의 구실을 갖고 있다. 사람들은 저마다 갖고 있는 나름의 구실을 자격(資格)이라고 말한다. 사람들은 자격을 기틀로 삼아서 가족, 씨족, 겨레, 마을, 지역, 국가와 같은 무리를 이루어서 함께 어울려 살아간다. 사람들은 낱낱의 사람이 무리를 지어서 함께 어울리는 것을 사회(社會)라고 부르고,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것을 사회생활(社會生活)이라고 부른다. 교통, 교류, 교역, 통신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무리를 이루는 것이 점점 커져서, 곳곳에 있는 온갖 사람들이 하나의 마을처럼 지구촌을 이루어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고 있다.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갈 때, 낱낱의 사람은 저마다 갖고 있는 구실을 입, 손, 발, 몸 따위를 놀려서 노릇하는 일로써 풀어낸다. 노릇은 사람이 구실을 갖가지 일로 풀어내는 것을 말한다. 이를테면 사람들은 입, 손, 발, 몸 따위를 놀려서 사람 구실을 사람으로 노릇하는 일로써 풀어내고, 아버지 구실을 아버지로 노릇하는 일로써 풀어내고, 학생 구실을 학생으로 노릇하는 일로써 풀어내고, 시민 구실을 시민으로 노릇하는 일로써 풀어낸다. 사람들은 구실을 노릇하는 일로써 풀어내는 것을 바탕으로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살아간다.

사람이 사람다움을 이룸 : 인격 완성

살림살이의 임자인 사람은 사람의 됨됨이와 차림새에 걸맞고 알맞은 사람의 구실을 다함으로써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사람들은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을 인격 완성이라고 말한다. 사람들은 인격 완성을 살아가는 일의 보람으로 삼는다. 사람들은 이런 것을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라고 말한다.

5. 인격에 대한 욕망

인격은 밖으로 드러난 사람됨의 차림새를 말한다. 사람들은 밖으로 드러난 사람됨의 차림새를 가지고서 어떤 사람의 사람됨을 알아보고 알아내고 알아주는 일을 한다.

사람됨의 차림새는 나름의 격식을 갖고 있다. 사람들은 사람됨의 차림새를 격식에 맞게 차림으로써 인격자로서 서고자 한다. 사람들은 사람됨의 차림새를 격식에 맞게 차리기 위해서 기운을 차리고, 정신을 차리고, 염치를 차리고, 예의를 차리고, 예절을 차리고, 체면을 차리고, 체모를 차리고, 살림을 차리는 것과 같은 일을 한다. 사람들은 사람됨의 차림새가 격식에 맞게 차려졌다고 여기는 경우에 "그는 인격이 있는 사람이다.", "그는 인격을 갖춘 사람이다.", "그는 인격자이다."라고 말한다.

사람은 밖으로 드러난 사람됨의 차림새를 잣대로 삼아서 남의 인격을 저울질하는 일에 눈을 뜨게 된다. 그리고 사람은 남의 인격을 저울질 하는 것에 비추어서 나의 인격을 저울질하는 일로 나아간다. 사람은 인격을 저울질해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알게 되면, 나의 인격에 대해서 나름의 욕망을 갖게 된다. 사람들은 이런 욕망에 기대어 나의 인격에 값어치를 매겨서, 좋아하거나 싫어하고, 뿌듯해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즐거워하거나 괴로워하게 된다. 이러니 사람들은 인격을 구분하고, 구별하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차별하는 일에 많은 관심을 갖는다. 이와 같은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격을 구분함

인격 구분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인격을 그냥 갈래로 나누어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인격을 갈래로 나누어 구분함으로써 인격에 같고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또렷이 알 수 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인격을 가진 인격체가 되고 싶어 하는 까닭으로 인격을 그냥 갈래로 나누어 구분하는 것에도 관심이 많다.

인격을 구별함

인격 구별은 사람들이 인격을 갈래로 나누고, 그것을 구실에 따라서 구별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테면 사람들은 인격의 갈래를 아이, 어른, 학생, 교사, 병사, 장교, 사장, 사원 따위로 나누고, 그것에 구실을 붙여서 아이 구실, 어른 구실, 학생 구실, 교사 구실, 병사 구실, 장교 구실, 사장 구실, 사원 구실 따위를 따로 하도록 구별한다. 사람들은 인격을 구별함으로써 구실에 따르는 권리와 권한과 책임을 또렷이 알 수 있다.

인격을 인정함

인격 인정은 사람들이 저마다 나름으로 갖고 있는 인격을 알아보고 알아주는 것을 말한다. 사람들이 만나서 함께 하는 일을 잘 하려면 인격을 알아보고 알아주는 것을 잘해야 한다. 자폐를 앓는 이들은 상대의 인격을 알아보고 알아주는 것에 문제가 있다.

사람들은 누구나 저의 인격을 다른 사람이 높게 알아보고 알아주기 바란다. 그런데 사람은 인격을 알아보고 알아주는 잣대나 줏대가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인격을 알아보고 알아주는 일에서 여러 가지로 말썽이 생길 수 있다. 사람들은 일상에서 인격을 알아보고 알아주는 것을 가지고서 사소하게 다투는 것을 '자존심 경쟁', '자존심 대결', '자존심 싸움' 따위로 말한다. 사람들이 인격을 심하게 업신여기는 경우에 인격모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6. 인격을 존중하거나 무시하는 일

사람들이 인격을 존중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내가 남의 인격을 존중하거나 무시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내가 남의 인격을 존중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내가 나의 인격이나 남의 인격을 값지게 또는 값싸게 여기는 일에 바탕을 두고 있다. 나는 나의 인격을 값지게 또는 값싸게 여기는 것을 바탕으로 삼아서 남의 인격을 값지게 또는 값싸게 여기는 일로 나아가서, 남의 인격을 존중하거나 무시하는 일을 꾀하게 된다.

남의 인격을 존중하는 일

나는 인격을 값지게 또는 값싸게 여기는 것을 바탕으로 남의 인격을 존중하는 일로 나아간다. 내가 남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내가 나의 인격을 값지게 여기면서 남의 인격도 값지게 여기는 가운데 남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다. 이때 나는 나와 남의 인격을 모두 값지게 여겨서 차별을 두지 않으려고 한다. 나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와 같은 생각을 바닥에 깔아 놓고서 나와 남의 인격을 같게 보려고 한다. 나는 남이 어떤 처지에 놓이더라도 인격을 존중하고자 한다. 이를테면 내가 남보다 크게 낫거나 남이 나보다 크게 못하더라도 나는 그것에 매이지 않고, 인격을 존중하려고 한다. 내가 이렇게 하려면 사람이 가진 인격이 얼마나 크게 값진 것인지 깊이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나는 인격이 무엇인지 묻고 따져서 밝게 깨치는 일로 나아가야 한다.

둘째는 내가 나의 인격을 값싸게 여기면서 남의 인격을 값지게 여기는 가운데 남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다. 이때 나는 나와 남의 인격에 차별을 두고서 나보다 나은 것만큼 남의 인격을 존중하려고 한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까닭이 있을 수 있다.

먼저 내가 나의 인격이 남의 인격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고서 남의 인격이 나보다 나은 만큼 남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려면 인격의 크기를 제대로 알아볼 수 있어야 하고, 인격에서 앞선 이를 존경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다음으로 내가 나의 인격이 남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서 남의 인격이 나보다 나은 만큼 남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다. 나는 인격의 크기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게 된다. 그런데 나의 인격을 값싸게 여기고, 남의 인격을 값지게 여기는 일에 버릇이 든 사람은 곧잘 이런 일을 하게 된다. 이를테면 인격에 대해서 스스로 깊고 넓게 묻고 따지는 일이 없이, 남들이 성인(聖人), 현인(賢人), 군주(君主), 위인(偉人), 영웅(英雄)라고 일컫는 것을 그냥 따르는 이들은 나의 인격을 값싸게 여기는 일에 젖어서 남의 인격을 무턱대고 존중하는 일에 빠질 수 있다.

남의 인격을 무시하는 일

나는 인격을 값지게 또는 값싸게 여기는 것을 바탕으로 남의 인격을 무시하는 일로 나아간다. 내가 남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내가 나의 인격을 값싸게 여기면서 남의 인격도 값싸게 여기는 가운데 남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때 나는 나와 남의 인격을 모두 값싸게 여겨서 차별을 두지 않으려고 한다. 나는 "사람이 뭐 별거냐? 사람하고 개, 돼지가 크게 다를 바 없지."와 같은 생각을 바탕에 깔아 놓고서 나와 남의 인격을 같게 보려고 한다. 나는 남의 인격을 특별히 값지게 여겨야 할 까닭이 없기 때문에 남을 그냥 나처럼 대한다. 그러나 남의 눈에는 내가 남의 인격을 무시하는 사람으로 보이게 된다. 이 때문에 내가 남의 인격을 무시하는 일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둘째는 내가 나의 인격을 값지게 여기면서 남의 인격을 값싸게 여기는 가운데 남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때 나는 나와 남의 인격에 차별을 두고서 남이 나보다 못한 것만큼 남의 인격을 무시하려고 한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까닭이 있을 수 있다.

먼저 내가 남이 나의 인격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제대로 알아보고서 남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이다. 내가 남의 인격을 제대로 알아보게 되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나는 남이 나보다 못한 것만큼 남의 인격을 무시하려고 한다.

다음으로 내가 남이 나의 인격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서 남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이다. 내가 남의 인격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나는 남이 나보다 못한 것만큼 남의 인격을 무시하려고 한다. 그런데 내가 잘못 알고서 그랬다는 것을 알게 되면, 곧바로 그렇지 않은 쪽으로 나를 고쳐가게 된다.

끝으로 내가 남보다 인격에서 앞서야 한다고 생각하고서 억지로 남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이다. 나는 남보다 인격에서 앞서야 하기 때문에 억지를 부려서라도 남을 이기고자 한다. 나의 인격을 높이고, 남의 인격을 낮추는 일에 버릇을 들인 이들은 곧잘 이런 일을 하게 된다. 나는 남의 인격을 값싸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구실이나 노릇을 빌미로 삼아서 남의 인격을 끌어내리려고 한다. 나는 남을 "~구실도 못하는 사람', '~노릇도 못하는 사람'으로 몰아붙여서 남의 인격을 대놓고 무시하려고 한다.

사람들이 인격을 존중하는 일과 무시하는 일을 놓고서 다투고 싸우는 일이 잦아지면 인격을 인정하는 일을 놓고서 인정 투쟁을 벌이는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이런 이들은 저의 인격을 값지게 만드는 일과 남의 인격을 값싸게 만드는 일에 온힘을 쏟는다. 이런 이들은 상대를 생각하거나 마주할

때마다 오로지 상대의 인격을 무너뜨리는 일에 꽂힌다. 어떤 사람이 인정 투쟁에 빠지는 상황에 놓이면, 그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인격자로 남아 있을 수 없다. 그에게는 인정 투쟁에서 이긴 사람과 진 사람만 있다.

7. 인격 차별과 인격 투쟁

인격 차별은 사람들이 저마다 나름으로 갖고 있는 인격을 신분으로 갈라서 차별하는 것이다. 신분제도를 강제할 수 있는 지배층이 자리하고 있을 때, 인격 차별이 흔히 나타난다. 지배층은 인격 차별을 통해서 신분제도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더욱 크게 만들고자 한다. 그들은 인격을 높여야 하는 신분과 인격을 낮추어야 하는 신분을 갈라서 서로 넘나들지 못하게 한다. 그들은 사람들이 신분에 따라서 구실을 달리하게 하는 것과 함께 물건을 소유하고, 어디에 출입하고, 누구와 결혼하고, 무엇을 공부하고 하는 일과 같은 것도 달리하게 해서 인격을 신분에 맞추도록 만든다. 그들은 학문, 종교, 전통 따위를 끌어들여서 인격 차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행, 관습, 규범, 법률과 같은 것을 만들어서 따르게 한다. 그들은 사람들이 신분으로 인격을 차별하는 것을 일상으로 여겨서 별다른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동시에, 인격 차별에 대한 저항이 일어나면 그것에 대한 처벌을 무섭게 함으로써 더는 생각하지 않도록 만든다. 신분으로 인격을 차별하는 일이 버릇으로 굳어지게 되면, 낱낱의 사람이 그것에 맞서서 저항하는 일은 생각조차 하기 힘들게 된다.

일찍부터 사람들은 신분으로 인격을 차별하는 일을 예사롭게 해왔다. 처음에 사람들은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이나 전쟁에서 포로로 잡힌 사람을 특별한 신분으로 묶어서 인격을 차별하였다. 그런데 국가 규모가 커지고, 분업 체계가 촘촘해지고, 지배층이 강력해지면서 모든 사람을 신분으로 갈라서 인격을 차별하는 일을 예사롭게 여기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신분으로 인격을 차별하는 일을 마땅한 일처럼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신분으로 인격을 차별하는 것은 정치 체제, 지배 집단, 시대 상황 등에 따라서 차별의 대상, 차별의 범위, 차별의 정도에서 다른 점이 많다.

국민이 주권자인 민주국가에서는 신분제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인격을 신분으로 갈라서 차별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 민주주의를 앞세우는 국가들이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신분에 따른 인격 차별은 크게 줄어 들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앞세우는 국가라고 하더라도 공식 또는 비공식으로 신분에 따른 인격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

조선왕조의 지배층은 인격을 신분으로 갈라서 차별하는 것을 마땅한 일이라고 보았다. 그들은 국왕과 왕족, 사대부, 중인, 상민, 천민 따위를 신분으로 갈라서 인격을 차별하는 것을 왕조체제를 유지하는 기틀로 삼았다. 그들은 신분이 높은 사람을 인격이 높은 사람으로 받들게 함으로써, 신분이 낮은 사람이 신분이 높은 사람을 우러러 보도록 만들었다. 그들은 이러한 차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주희(朱熹)가 집대성한 성리학에서 볼 수 있는 친소본말(親疏本末)과 존비귀천(尊卑貴賤)의 논리를 강조하는 가운데 예의규범(禮義規範)과 강상윤리(綱常倫理)로써 인격 차별을 뒷받침하였다.

조선왕조의 지배층은 학자이자 관료이자 사제로서 권위와 권력을 오로지 하였다. 그들은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의 논리를 끌어들여서 스승과 아버지를 임금처럼 우러러 보도록 이끌었고, '장유유서(長幼有序)'와 '남존여비(男尊女卑)'의 논리를 끌어들여서 나이와 성별을 인격의 잣대로 삼도록 이끌었다. 그들은 권력 관계에서 비롯하는 지배와 종속을 일상생활로 끌어들여서 피지배층의 복종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신분에 따른 인격 차별로 말미암아 어떤 이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일이 일상으로 벌어지게 되었다.

조선왕조의 지배층은 한국말에 있는 '존비어체계(尊卑語體系)'를 인격 차별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이용하였다. 그들은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 높임말을 쓰고, 신분이 낮은 사람에게 낮춤말을 쓰게 함으로써 신분에 따른 지배와 복종 관계를 인격에 의한 지배와 복종 관계로 탈바꿈시키고자 하였다. 이 때문에 주막집에서 양반과 상민이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밥을 먹더라도 말투로써 인격을 차별하여 양반은 '진지를 드시는 사람'으로 높이고, 상민은 '밥을 먹는 사람'으로 낮추었다. 그들은 존비어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만들어서 인격에 의한 지배와 복종 관계를 더욱 깊고 넓게 만들고자 하였다.

인격 투쟁은 사람들이 인격을 신분이나 지위로 갈라서 차별하는 것에서 생겨나는 이익과 손해를 생각해보고서, 이익의 경우에는 더 많이 갖고, 손해의 경우에는 더 적게 갖기 위해서, 이쪽과 저쪽이 서로 맞붙어서 싸움을 벌이는 것을 말한다.

사람들이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신분이 높은 왕후장상(王侯將相)이 되는 것도 특별한 씨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거나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거나 "우리는 모두 같은 핏줄의 자손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신분이나 지위로 인격을 차별하는 일이 있게 되면,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인격 투쟁에 나서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까닭으로 신분이나 지위에 따른 인격 차별이 심하면, 인격 투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진다.

그런데 인격 차별이 심하다고 해서 곧바로 인격 투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인격 차별이 심하더라도 사람들이 그것을 심각한 차별로 여기지 않거나, 그것에 대차게 맞서려는 생각을 갖지 않으면, 인격 투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인격을 신분이나 지위로 갈라서 차별하는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투쟁은 쉽게 일어나지 않다. 인격 투쟁에는 커다란 위험과 엄청난 대가가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에 지배층은 사람의 인격을 신분으로 갈라서 차별하는 일에 많은 힘을 쏟았다. 그들은 가족 차원에서 남자와 여자, 장자(長子)와 중자(衆子), 적자(嫡子)와 서얼(庶孼)을 구별해서 인격을 차별하도록 이끌었고, 국가 차원에서 왕족(王族)과 사대부(士大夫)와 서리(書吏)와 상민(常民)과 천민(賤民)을 구별해서 인격을 차별하도록 이끌었다. 이에 더하여 그들은 종교를 구별해서 인격을 차별하도록 이끌었고, 당파(黨派)을 구별해서 인격을 차별하도록 이끌었고, 지역을 구별해서 인격을 차별하도록 이끌었다. 그들은 구별에 따른 차별의 질서로써 세상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보았다.

조선후기에 영조와 정조는 관리를 뽑아서 직책을 맡기는 일을 고루 하고 두루 하는 탕평책(蕩平策)을 펼쳐서 가문(家門)과 당파(黨派)와 지역(地域)에 따른 인격 차별을 줄여보고자 했다. 그들은 가문과 당파와 지역으로 나뉘어서 저들끼리 다투는 백성을 임금 밑으로 모아서 고루 하고 두루 하는 공공(公共)의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그런데 정조가 죽고 11세의 순조가 들어서자 외척 세력이 정치를 주도하게 되면서 탕평책은 없었던 일처럼 되고 말았다.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 사이에 차별을 넘어선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로 인격 투쟁이 일어나게 되었다.

첫째로 조선후기에 서얼들은 가문과 국가가 서얼의 인격을 차별하는 제도를 없애줄 것을 요구하는 운동을 벌였다. 영조48년(1772년)에 경상도 서얼 유생 3,000여명이 함께 상소를 올려서 서얼에 대한 차별이 옳지 않다고 호소하였고, 순조 23년(1823년)에 전국에서 서얼 유생 9,996명이 함께 상소를 올려서 서얼에 대한 차별이 옳지 않다고 호소하였다. 이런 가운데 영조는 <통청윤음(通淸綸音)>을 내려서 서얼도 선전관(宣傳官)과 같은 청요직(淸要職)에 임명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서얼을 위해서 새로운 직책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정조는 <서류허통절목(庶類許通節目)>을 내려서 서얼이 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공식적으로 허용하였다. 정조는 규장각(奎章閣)에 박제가, 유득공, 이덕무와 같은 서얼 출신을 검서관(檢書官)으로 임명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서얼의 인격을 차별하는 관행과 규범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조선후기에 벌어진 서얼허통(庶孼許通) 운동은 서얼들이 벌인 인격 투쟁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로 조선후기에 천주학을 믿고 따르는 이들은 누구든지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존중받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이 천주(天主)의 자녀로서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인격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였다. 그들은 천주 안에서 양반과 평민과 천민이 함께 하고,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하고,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하는 공동체를 이루어보고자 하였다. 그들은 가운데 많은 이들은 이런 공동체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아야 했다. 수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꺼이 목숨을 바쳤다. 그들은 소극적 방식으로 매우 뜨겁게 인격 투쟁을 벌였다고 할 수 있다.

셋째로 조선후기에 서북지역에서 일어난 홍경래의 난이나 삼남(三南)지역에서 일어난 민란(民亂)은 차별을 넘어선 새로운 세상을 바라는 이들이 목숨을 걸고 벌인 인격 투쟁이었다. 1811년에 홍경래와 함께 하는 이들은 서북 사람에 대한 차별, 국정의 문란, 관료의 수탈 따위를 명분으로 난을 일으켜서 평안도 일대를 점령하고 다섯 달 동안 위세를 떨쳤다. 그들은 조선왕조가 아닌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하였다. 그리고 1862년에 경상도 단성현(丹城縣)에서 농민 대표들이 모여서 삼정(三政-田政, 軍政, 還政)의 문란에서 빚어진 지나친 부담에 항의하려고 무리를 이루어 소란(騷亂)을 피웠다. 이것이 소문으로 전해지자 이웃한 진주, 함양, 거창 등에서도 소란이 일어나게 되었고, 점점 퍼져서 경상도와 전라도와 충청도에 이르는 70여 고을에서 소란이 일어났다. 그들은 매우 적극적 방식으로 뜨겁게 인격 투쟁을 벌였다고 할 수 있다.

넷째로 조선후기에 동학(東學)을 일으킨 최제우는 사람들이 누구나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존중받는 새로운 세상을 가르쳤다. 그는 1860년에 한울님(:天主)과 주고받은 문답을 통해서 천주강림(天主降臨)의 도를 깨닫고 동학을 창시하였다. 그는 신분제도가 사라진 새로운 인격공동체를 꿈꾸면서 논학문(論學文), 안심가(安心歌), 교훈가(敎訓歌), 도수사(道修詞) 따위를 지었다. 그는

사람됨의 바탕을 시천주(侍天主)에서 찾았다. 그는 사람들이 한울님을 모심으로써 사람의 인격이 한울님과 하나가 된다고 보았다. 그는 이런 가르침을 펴다가 '사도난정(邪道亂正-삿된 길로써 바른 것을 어지럽힘)'의 죄목으로 목숨을 잃었다. 그의 가르침이 씨앗이 되어 1894년에 갑오동학농민전쟁이 일어났다. 갑오동학농민전쟁은 전국적으로 일어난 인격 투쟁이다.

한국사람은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라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사람이면 누구나 사람답게 살아야 하고,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까닭으로 인격 투쟁에 대한 열기가 매우 뜨겁다. 이런 열기가 집단으로 나타나면, 시위나 소요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번질 수 있다. 이런 것에 뿌리를 두고서 1919년의 3.1만세운동, 1960년의 4.19민주혁명, 1979년의 부마민주항쟁, 1980년의 광주민주항쟁, 1987년의 6월민주항쟁, 2016년의 탄핵집회와 같은 것이 일어났다.

7. 인격과 존비어체계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은 모든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민주공화국으로 출범했다. 대한민국은 사람을 신분으로 나누어서 차별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법으로는 누구나 대등한 인격 관계에 놓인다. 사람들이 인격을 신분으로 갈라서 차별하는 경우에 법에 따른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사람을 지위로 나누어서 인격을 차별하는 것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인격을 신분으로 나누어서 차별하던 버릇 때문에 인격을 차별하는 일이 여기저기서 벌어진다.

한국사람은 대한민국이 출범한 뒤로 수십 년 동안 줄기차게 민주화를 추진함으로써 제도의 측면에서 완전한 민주화를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살아가는 나날의 모습을 보면 인격을 차별하는 일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사람들은 신분제도가 사라졌음에도 신분으로 인격을 차별하는 일을 예사롭게 한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다짐을 두는 경우에도 그런 일이 쉽게 벌어진다.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놓이는 것은 신분제도와 비슷한 구실을 하는 어떤 것이 계속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한국말에서 볼 수 있는 존비어체계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존비어체계가 버릇으로 굳어지게 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관계를 유사신분관계로 바라보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사람들이 유사신분관계 속에서 사람을 신분으로 인격을 갈라서 차별하는 일은 숨을 쉬는 일처럼 쉽게 일어난다.

조선왕조에서 존비어체계는 신분에 따른 인격 차별을 강화시켜주는 일을 함으로써 왕조체제를 지키는데 유용한 수단으로 구실하였다. 그런데 대한민국과 같은 민주사회에서 존비어체계는 사람들이 민주적 인간관계를 맺는 것을 가로막는 방해물로 구실한다. 이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민주적 인간관계와 차별적 존비어체계 사이에 끊임없이 마찰과 충돌이 빚어지게 된다. 사람들은 민주적 인간관계와 차별적 존비어체계를 놓고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갈피를 잡기 어렵다. 사람들이 민주적 인간관계를 제대로 맺으려면 존비어체계에서 비롯하는 유사신분관계를 벗어나야 한다.

오늘날 한국사람은 존비어체계로 말미암아 마주하는 모든 것을 유사신분관계 속에서 바라보게 된다. 그들은 나이, 성별, 학벌, 지위, 재산 따위를 잣대로 신분의 높낮이를 나누고 말투를 달리해서 인격을 차별하려고 한다. 그들은 '소화기 질환'을 두고서도 신분에 따라서 말투를 달리해서 "저 선생님께서 소화기 질환을 갖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저 학생은 소화기 질환을 갖고 있다."라고 말한다. 이러니 사람들은 유사신분관계 속에서 인격의 높낮이를 놓고서 끊임없이 인격 투쟁을 벌이게 된다.

사람들이 유사신분관계 속에서 인격 투쟁을 벌이게 되면,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을 인격 투쟁의 빌미로 삼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인격 투쟁을 하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 꼬투리가 잡히지 않기 위해서 바짝 긴장하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든 신분을 높여서 사장님, 회장님, 선생님, 사모님, 고객님 따위로 부르게 된다. 신분을 높여서 부르게 되면, 실제와 맞지 않더라도 뒤탈이 생기지 않는다. 이러니 사람들은 상대를 부르는 호칭의 격을 계속 높여 왔다. 이를테면 신분제도가 사라지면서 사람들은 너나없이 상대를 양반으로 높여서 부르기 시작했다. 그런데 누구나 양반으로 불리게 되니 양반이 값싼 말처럼 되어서, 사람들은 양반을 낮춤말처럼 듣는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언제부터 사람들은 너나없이 상대를 사장으로 높여서 부르기 시작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사장으로 불리게 되니 사장이 값싼 말처럼 되어서, 사람들은 상대를 회장으로 높여서 불러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사람들이 유사신분관계 속에서 인격 투쟁을 벌이게 되면 권위나 권력을 드러낼 수 있는 모든 자원, 곧 나이, 성별, 외모, 치장, 출신, 학벌, 지위, 자본, 명성 따위를 인격 투쟁의 수단으로 끌어들인다. 그들은 세상에 널려 있는 모든 것을 권위나 권력으로 덧칠하고자 한다. 그들은 저에게 있는 모든 것을 뛰어나고 빼어나게 만들어서 고개를 쳐들고 다니고자 한다.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저를 우러러보게 된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유사신분관계 속에서 인격 투쟁을 벌이면 나이, 성별, 외모, 치장, 출신, 학벌, 지위, 자본, 명성과 같은 인격의 형식에 관심을 집중한다. 인격의 형식에서 앞서는 사람이 인격이 높은 사람이고, 인격 투쟁에서 이기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만나면, 이런저런 방식으로 인격의 형식을 살펴서 고개를 쳐드는 사람과 고개를 숙이는 사람을 정해야 한다. 그래야 인격 투쟁에서 오래도록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일이 버릇이 되면 사람들은 인격의 형식만 바라보는 형식적 권위주의에 빠져들게 된다.

한국사람이 갖고 있는 인격 투쟁에 대한 열망은 치열한 시장 경쟁 속에서 강력한 성취동기가 되어 왔다. 사람들은 인격 투쟁에서 완전한 승리자가 되려고 가장 높은 곳에 오르고자 한다. 그들은 어디서건 1등을 해서 최고 중의 최고가 되고자 한다. 그래야 어느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일 일이 없게 된다. 이러니 그들은 신기록을 세우고, 우승컵을 손에 들고, 금메달을 목에 거는 일에 목숨을 건다. 이 때문에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따고서도 기쁨으로 소리치기보다 아쉬움으로 울먹이는 일이 벌어진다.

한국사람이 갖고 있는 인격 투쟁에 대한 열망이 밖으로 드러나 폭발하면 무섭고 놀라운 일이 곳곳에서 벌어진다. 그들은 저만 또는 저들만 빛내기 위해서 엄청난 힘으로 인격 투쟁을 벌여왔다. 그들은 이기고 싶은 것을 이기는 일에서 어느 누구보다 힘차고 굳세고 야무지게 살아왔다. 그들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외치고 나선지 몇 십 년이 지나지 않아서 멀리 앞선 나라까지 따라잡을 수 있었다. 그들은 세상이 알아주는 교육 강국, 기술 강국, 문화 강국으로 자리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사람이 저만 또는 저들만 빛내기 위해서 벌인 인격 투쟁은 밝은 쪽에 못지않게 어두운 쪽이 함께 하였다. 저만 또는 저들만 위해서 죽기 살기로 벌여온 인격 투쟁으로 말미암아 고루 하고, 두루 하고, 널리 할 수 있는 떨림, 울림, 어울림, 알아줌, 보아줌, 도와줌, 보살핌과 같은 함께 함의 바탕이 많이 허물어지게 되었다. 이 때문에 어진 마음에서 비롯하는 따뜻한 눈길과 다정한 손길이 점점 낯선 일처럼 되어 왔다. 그들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일을 너무나 힘겨운 일로 여겨서, 아예 손을 떼고자 한다.

한국사람은 거칠게 몰아치는 인격 투쟁 속에서 지치고 외로운 몸과 마음을 돌아보면서 “왜, 살아야 되지?”, “왜, 낳아야 되지?”, “왜, 키워야 되지?”를 거듭해서 되물어야 한다. 그들은 자살률에서 세계 최고를 달리면서 출산율에서 세계 최저를 달리는 신기록을 세우고 있다. 그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나 세대를 생각한다면, 저만 또는 저들만 빛내기 위한 투쟁을 넘어서 남까지 두루 하고, 것까지 널리 하는 어울림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 차라리 죽고 싶은 심정으로 내몰리는 것을 줄여나갈 수 있다.